

재치있는 여학생의 응수

버스 토큰을 사용하던 시절의 어느 날 오후였다.

대학교 교문을 나오던 남학생 한 명이 낯선 여학생 곁으로 다가 가서 말을 건네었다.

“저 죄송합니다만 차비가 없어서 그러는데요, 토큰 하나만 꾸어주실 수 있겠습니까?”

그랬더니 그 여학생은 즉각 뜻밖의 질문을 해 왔다.

“혹시 오늘 시간 있으세요?”

남학생은 마음속으로 이게 웬 떡이냐?하고 얼른 대답하였다.

“예, 물론이죠. 저는 오늘 시간이 보따리로 싸 가지고 다닐 정도로 많고 많습니다.”

그러자 재치 있는 여학생 왈,

“그러세요? 그렇다면 걸어서 가세요.”